

# A Queerness Reflected in Contemporary Fashion

Park, Eun-Kyung\* · Lee, Jae-Jung

Duksung Women's University · Kookmin University

The queerness that has been appeared as an important issue featuring polysemy in the prospect of socio-culture upon the latter part of 20th century as a cultural code in order to express the variety of contemporary fashio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queerness that has been discussed throughout entire cultural fields from the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and also to examine how this queerness affects contemporary fashion culture.

The reason of advent of queer theory lies on the background of appearance of a peculiar subculture and the community upon arrival of the 20th century, that is to say, a new pluralism has been created and developed as a part of deepening process of social complexity and specialization not only in the gender and diversity of sexual experiences but also in hierarchical, tribal, racial and cultural form through such a process. According to this, a new queer theory that accepts visualization of varied sexuality and sexual desire as well as that approves hierarchical and racial differences has been made an appearance.

Queer sometimes embraces unusual and abnormal aesthetic sensibility getting rid of common sense and preconception in connection with the difference of gender. Queer regards a sexual issue as a core task and implies all normal norms and standards, value and identity keeping an attitude to understand social, political, cultural and artistic phenomena.

Likewise, queer theory can be said that it is a post-modernism thought putting focus rather on sexuality than any other theories concerned with sex. Queer theory, therefore, refuses intrinsic association with regard to sex, gender and sexuality. Specifically, queer indicates flexible identity, and it has a meaning and

significance in identifying the role of sex in the aspect of performance.

The author is to investigate contemporary fashion culture with a focus on the assertion of Butler's theory. The behavior that turns cultural signifier belonged to the opposite sex into parody through drag or cross-dressing in contemporary fashion has a purpose that those behave as such try to exhibit more of feminine or masculine features than natural look according to biological sex through their imitated behaviors.

As reviewed, the intrinsic cultural quality of fashion as in the stand of queerness refuses the role of sex that is being forced according to existing heterosexual identity of sex and relevant norms, and i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community and tastes. Also, They contains concepts with regard to body form or emphases on the points related to physical and spiritual weakness, camp, decadence and irony featuring more variety than sexual structure.

Therefore, the queerness reflected in the contemporary fashion as follows; imitation through the parody of sex, amusement as a visual role of sex paradoxically, uncanniness in terms of camp, unexpectedness as sexual identity.

Therefore, indeterminacy and instability of queer contains a variety of meanings. New identity of queer has been accepted as a form of an alternative lifestyle that appeared continuously from the later part of the 20th century, and it generates new interests and attentions with regard to the others and surrounding cultures.

## 현대 패션에 반영된 퀴어성에 대한 연구

박은경\* · 이재정

덕성여자대학교<sup>1)</sup> · 국민대학교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다의성의 주요 이슈로 등장한 퀴어성은 현대 패션의 다양성을 표현하기 위한 문화적 코드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문화 전반에 자주 거론되어 온 퀴어성을 학제적(學際的) 관점에서 살펴보고, 또한 현대 패션문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퀴어 이론이 등장한 것은 20세기에 들어와 특유한 성적 하위문화와 공동체가 등장하게 된 배경, 즉 사회적 복잡성과 분화의 심화과정의 일부분으로서 이를 통해 성별과 성체현의 다양성은 물론 계급적, 종족적, 인종적, 문화적 형태에 있어서도 새로운 다원주의가 창출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섹슈얼리티의 가시화, 성적 욕망 뿐 아니라 계급과 인종적 차이를 인정하는 새로운 퀴어 이론이 대두하게 된 것이다.

퀴어는 성차(性差)에 관한 상식과 선입견을 벗어난 비일상적이고 비정상적인 미적 감수성을 포괄하기도 한다. 퀴어는 성의 문제를 중심적인 사안으로 그것을 통해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예술적 현상들을 이해하려는 태도로서 모든 정상적인 규범과 기준, 가치와 정체성을 넘어서는 탈경계와 탈정체의 의미를 함축한다.

이와 같이 퀴어 이론은 그 어느 성에 관한 이론보다도 섹슈얼리티에 중점을 둔 포스트모더니즘적 사고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퀴어 이론은 성, 젠더, 섹슈얼리티에 대한 본질적인 연관성을 거부한다. 즉, 퀴어란 유동적 아이덴티티를 가리키는 것으로 퍼포먼스라는 측면에서 성(性)의 역할을 규명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논자는 Butler의 퀴어 이론을 기본으로 젠더와 섹슈얼리티는 언제든지 그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는 유동적·수행적인 개념이라는 Butler의 주장을 중심으로 현대 패션문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현대 패션에서 드랙(drag)이나 복장전이(cross-

dressing)를 통해 반대 성의 문화적 기표들을 패러디하는 행동은 그들 자신의 모방된 행위들이 생물학적 성의 자연적 모습보다 더 여성스럽거나 남성답다는 것을 과시하는데 있다. 그럼으로써 젠더에 관련된 기존의 특질들이 자연적이고 천부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이고 문화적으로 구성된 산물임을 강조하는데 있다.

이처럼 퀴어성으로서 살펴본 패션의 문화적 본질은 기존의 이성애적 성 정체성에 따라 강요되는 성역할이나 규범들을 거부하며 능동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동성애와 다양한 성적 소수자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공동체적 특징과 취향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또한 뚜렷한 성별 대조가 없는 곳에서 퀴어는 비-성적(non-sexual) 특징들을 수반하기도 한다. 이들은 성별 구조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체형 혹은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약점에 대한 강조, 캠프, 데카당스, 아이러니에 대한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 패션에 반영된 퀴어성은 현대 패션의 다원적인 현상과 포스트모던 패션의 주요한 특징인 해체주의의 근거한 다양한 패션 현상을 포함한다. 그 결과, 패션에서 퀴어성은 성의 패러디를 통한 모방성, 성의 가시적 역할을 역설적으로 수행하는 유희성, 성적인 이분법을 캠프적으로 표현한 기괴성, 성 정체성의 해체를 표현한 의의성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퀴어의 불확정성, 불안정성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퀴어는 ‘자연적’인 사실로서보다는 문화적 ‘의미를 부여한’ 지속적인 활동이나 성취로서 제시되어야 한다. 이렇듯 퀴어의 새로운 아이덴티티는 20세기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대두된 대안적 라이프스타일의 한 형태로 받아들여졌으며 타자(the others) 혹은 주변부 문화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